

하나님의 안식: 거룩한 시간에서 거룩한 존재로 (창 2:1-3)

1. 창 2:1-2은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마쳤다고 합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1) **일곱째 날의 완성:**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 (2) **안식(메누하)의 창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메누하(고요, 기쁨, 쉼, 평화)’를 창조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세상만으로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으며, 안식(메누하)이 창조됨으로써 비로소 창조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됩니다.
- (3)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 만약 여섯째 날에 창조가 끝났다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완성이 일곱째 날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나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 인정할 때, 어떤 평안이 찾아오는지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2절)

안식일의 ‘쉼/그침/멈춤’이 왜 중요합니까?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1) **일을 그치고 안식하심:**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멈추셨기에, 그분을 본받는 우리에게도 정기적인 멈춤이 필요합니다.
- (2)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 (3) **영혼의 새로워짐(나파쉬):** 성경에서 하나님이 쉬어 평안하셨다는 말(나파쉬)은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멈추고 쉴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고 새롭게 됩니다.
- (4)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신뢰:** 설령 일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쥐고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멈출 수 있습니다.

나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멈춰야 할 일이나 걱정은 무엇인가요?

3. 안식일의 쉼/그침/멈춤에는 누가 포함되니까?(출 20:10)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 (1)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식: 안식일의 멈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 남종, 여종, 가축, 문안에 머무는 객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 (2) 공동체의 생명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자녀와 주변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고 모두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해서 자녀를 닦달하거나 푸쉬(push)하면 아이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집니다.
- (3) 하나님의 사이클에 동참: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쉴 때, 우리 자녀와 직원들도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지됩니다.

나눔

**나의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 주변 사람(자녀, 배우자, 동료 등)을 숨 막히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쉴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될지 나누어 봅시다.**

4. 안식일은 어떤 점에서 다른 날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입니까?(3절)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 (1) 거룩하게 하신 시간: 하나님은 일곱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카도쉬)’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과 신비, 위엄을 드러내는 단어로, 하나님은 이 신성을 ‘시간’ 속에 침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라 불립니다.
- (2) 거룩한 존재로의 변화: 하나님은 장소(성막)보다 시간(안식일)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시간 속에 거함으로써, 인간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노동도 억지로 하는 짐이 아니라 기쁘고 창조적인 ‘거룩한 노동’이 됩니다.
- (3) 영원한 안식의 맛: 안식일은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세계에 우리 삶을 잇대어 주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내세의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은 부활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제8요일’이며, 우리는 주일을 통해 마지막 안식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나눔

**나에게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입니까, 아니면 거룩히 구별된 ‘시간 속의 궁전’입니까?
주일을 통해 영원한 천국 안식을 미리 맛보기 위해 내가 회복해야 할 마음과 태도는 무엇인가요?**